



검도에 빠진 가수·뮤지컬 배우 서문탁

복싱 애호가로 잘 알려진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서문탁. 그에게겐 최근 새로운 특기가 생겼다. 주먹으로 ‘센 언나’란 타이틀을 쥐더니 이번엔 목검을 휘두르는 검도다. 한 번은 여성미를 한껏 강조할 수 있는 요가도 배워봤다. 하지만 “요가는 미친 듯이 안 맞더라. 어휴, 하다가 속이 답답해서...”라는 그는 결국 ‘거친 세상(?)’으로 돌아와 검을 뽑아 들었다. 워낙에 승부욕이 강한 지라 아무래도 격투기 종목이 적성에 맞는 듯했다. 본인도 “내 성격인 것 같다. 확고하고 시원 시원한 걸 좋아한다”고 인정했다.

요가 배워 보려다 속이 답답해서 검도 입문 타격서 오는 쾌감에 도복 차려입는 재미까지 운동 마치고 목상...심신 다스리는 좋은 운동

뮤지컬 ‘록히오러쇼’서 관객들과 함께 춤을 본명 이수진으로 밴드 활동...빌보드 노리쵸



뮤지컬 ‘록히오러쇼’에서 외계인 하녀 ‘마젠타’로 분한 서문탁. 사진제공 | 클럽서비스

“승부는 기합! 일단 소리로 반은 먹고 들어가죠”



서문탁이 목검을 들고 중단 자세를 취했다. 그는 “검도는 나이가 들어서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은 운동이 될 것 같다. 늙어서도 꾸준히 하고 싶다”며 검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서문탁

●검도가 왜 좋으냐고요?

제대로 검도를 배운 것은 불과 6~7개월 정도지만, 완전히 폭 빠져버렸다. 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타격음, 정갈하게 차려입은 도복,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 격렬함. 모든 것이 좋다. 서문탁은 “타격에서 ‘빠박!’하며 느끼는 쾌감이 있다. 또 검도복이 멋있잖아. 도복을 차려입는 재미도 있지”라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 “호구까지 다 착용하면 장비 무게만 10kg에 이르는데 운동량도 엄청 많다.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데 검도만 하면 땀이 푹둹 떨어진다. 그런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검도의 매력을 늘어놓았다.

하늘도 검도인의 운명을 예감한 것인지 타고난 무기도 있다. 오랜 시간 단련한 최고급의 성량이다. 다만 최대한 조심하 다룬다. 본인의 큰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봐서다. 서문탁은 “목소리를 100%로 지르지는 않는다. 한 절반 정도?”라고 여유를 부리면서도 “일단 상대와 딱 마주보고 서서 칼을 대고, 기합을 넣는 순간 마음속에선 승부가 결정된다. ‘아, 졌다’ 이런 거. 소리에서 압도되는 게 있으니 나는 반쯤 먹고 들어가는 셈이다”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제 아무리 검도에 대한 애정이 크다 한들 음악을 향한 마음만 할까. 서문탁은 운동을 하면서도 늘 성대가 상할까 걱정이다. 계속해 큰 소리를 지르다보면 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호구를 쓰면 중간에 뱃을 수 없기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없다. 가수들은 성대가 마르는 것에 정말 민감한데, 목이 상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그 핑계를 대고 (관장님께) 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 해야겠다”고 말한다. 이어 “뺨대를 쓰는 폼수도 생각해봤다”고 자랑하는 그녀는 은근히 귀여운 구석도 있다. 그리고 ‘천생 가수다’ 싶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2년 전, 검도 새내기 서문탁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일었다. 관장으로 부터 받은 뜻밖의 선물이었다. 호구를 쓰기 전 머리에 두르는 먼 수건을 건네받았는데 그 위엔 ‘勳善時(동선시)’란 글귀 새겨져있었다. 움직임에는 때가 있다는 뜻의 이 세 글자는 지쳐있던 그의 정신을 깨웠다. 서문탁은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다. 그때 관장님께서 딱 이 말을 해주신 거지. 울컥했다”고 그 순간을 떠올렸다.

결국 눈물로 보았다. 그는 “운동을 마친 뒤 1분 정도 목상을 하는 시간이 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푹둹 흐르는 거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심적으로 힘든 일을 몸으로 풀어냈다고 할까. 비

록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해하지 않고 내 할 일을 꾸준히 잘 해내면서 나를 갈고 닦는 시간을 가지면 나에게는 움직일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혹시 그 ‘때’가 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직 안 왔다. 기다리고 있다”며 호탕하게 웃는다. 이어 “그래서 이 문구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역시 검도의 매력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은 운동이 될 것 같다. 늙어서도 꾸준히 하고 싶다”고 자신감 섞인 굳은 믿음을 드러냈다.

●그냥 나답게 살자!

이수진. 서문탁이 지닌 강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굉장히 여성적인 그의 본명이다. 평소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이수진’은 아이들을 좋아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애청자이기도 하다. 이만한 반전매력이 있을까 싶지만 그는 “이렇게 여성적인 면도 있는데, 어필이 잘되지 않아 포기했다”고 너스레를 떤다.

무대 위에서 내뿜는 ‘걸크러시’ 이미지 또한 그의 여러 모습 중 하나다. 최근엔 뮤지컬 ‘록히오러쇼’에서 외계인 하녀 ‘마젠타’ 역을 맡아 열연 중인데,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서문탁에게 참 잘 어울린다. 더불어 그간 품어온 춤을 향한 열망도 마음껏 해소하고 있다. 그는 배우와 관객이 함께 춤을 추는 ‘타임워프’를 이 작품의 최고 명장면으로 꼽는다. 서문탁은 “관객들도 춤을 정말 열심히 춘다. 우리가 먼저 춤을 추라고 시켜주니, 관객들의 고마움과 열망에 찬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며 뿌듯해했다. 이 ‘무도회’는 8월 6일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즐길 수 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서문탁은 ‘이수진’을 휘하로 꾸려진 밴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앨범을 완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 목적은 앨범과 함께하는 세계일주. 때문에 직접 작사, 작곡한 영어 음원으로부터 앨범을 제작할 생각이다. 아울러 한층 진솔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해 예명을 사용하는 대신 ‘이수진’을 가수로 데뷔시키기로 했다. “제일 나다를 수 있는 음악이 나올 것 같다. 빌보드 차트를 노리고 있다(웃음).”

센 언니. 격투기 누나. 그를 뒤따르는 수석이다. 한 면으로 치우친 대중의 시선을 뒤로하고, 그는 끊임없이 진짜 ‘나’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단언한다. “꾸밈은 없을 것”이라고. 정말 이수진답다. 서대경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변화구 그림에도 지식재산권이 있을까?



똑같이 쥐고 던져도 연습에 따라 차이 동일한 방식이 동일한 결과 보장 안해 스포츠 창작물, 발명으로 보기 힘들어

야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구종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직구다. 가장 단순한 구종이지만 가장 빠르게 던지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이다. 야구가 점차 보급되면서 ‘어떻게 하면 타자를 속여서 칠 수 없게 만들까’라는 고민이 싹텄다. 그래서 탄생한 구종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마구라는 커브(curve)다. 윌리엄 캔디 커밍스가 처음 만들었다. 그는 커브를 앞세워 4년간 124승을 올렸다. 해마다 31승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승수다.

현대적인 축구 규칙은 1925년 6월 시작됐다. 오프사이드 규정을 ‘패스 시점에 최종 2번째 수비수(골키퍼 포함)보다 골라인 쪽에 가까이 있을 경우’로 개정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 속도가 빨라졌다. 자연스럽게 골도 늘어

났다. 이후 아스널 허버트 채프먼 감독이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들었다. 바로 WM 포메이션이다. 바야흐로 전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농구의 수비법에는 기본적으로 대인방어와 지역방어가 있다. 그런데 개인기량이 출중한 선수가 나타나면서 대인방어와 지역방어를 혼합한 수비법이 등장했다. 4명이 박스 형태로 지역방어를 하고, 1명이 상대방 에이스를 대인방어하는 박스 앤드 원(Box and One), 3명이 삼각형으로 지역방어를 하고, 2명이 상대방 에이스 2명을 대인방어하는 트라이앵글 투(Triangle Two) 등이다.

이처럼 종목마다 새로운 구종이나 전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낳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습

우리 현법은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창작된 결과물의 재산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헌법 제22조 제2항). 이처럼 사람의 창의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구종이나 포메이션도 창의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구종이나 포메이션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창작물일까?

텍사스 레인저스 다르빗슈 유는 ‘변화구 바이블’이란 책을 내 수만부를 완판시켰다. 이처럼 글을 쓴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감독이나 선수가 저작자, 과학기술자, 예술가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스포츠 창작물은 발명에 해당하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발명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변화구를 던지는 방법은 어떻게? 볼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변화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 방법 자체가 창작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잡는 방법과 던지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연습에 의한 숙련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잡는 방법과 던지는 방법보다는 끊임없는 연습이 더 중요한 것이다.

●포메이션도 끊임없는 노력이 더 중요

포메이션은 어떻게? FC바르셀로나의 ‘티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는 ‘변화구 바이블’이라는 책을 냈다. 개인의 창의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그렇다면 변화구 구종도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창작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휴스턴(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키타카’는 점유율에 중점을 두고 짧은 패스를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포항 스틸러스도 이를 모방해 ‘스틸타카’라는 전술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FC바르셀로나가 티키타카로 얻은 것과 같은 성과를 포항이 이룰 수도 없다. 각각의 선수들이 지닌 기량, 전술의 숙련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전술이라고 해도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숙련도에 따라서만 비로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다. 포메이션은 이런 노력

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스포츠는 땀과 결과가 비례하는 분야

어렸을 때 한 번쯤 누구도 칠 수 없는 마구를 던지거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나나키를 치는 상상을 해보았을 것이다.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는 선수라면 더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나 생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창의적인 생각과 더불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도 ‘스포츠란 땀을 통해 정직한 결과를 얻는 분야’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닐까?